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3년 11·12월 제67호



H LEAGUE

기대감 커진 핸드볼 H리그
2023-2024시즌 개막 초반 풍경과 체크포인트

핸드볼 전문가 11인 설문!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WORLD CHAMPIONSHIP

절치부심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적 강자 명예 회복 위해 출발!

IN DEPTH

한국 핸드볼에 주는
일본의 메시지

INSIDE

핸드볼 '제대로' 배워봅니다
기자의 KHF핸드볼클럽 체험기

COVER STAR

1순위로 불리던 순간 울컥했죠!
H리그 빛낼 샷별 김세진·강준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3년 11·12월 제67호



02 H LEAGUE

기대감 커진 핸드볼 H리그
2023-2024시즌 개막 초반 풍경과 체크포인트

08 H LEAGUE

핸드볼 전문가 11인 설문!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10 COVER STAR

1순위로 불리던 순간 울컥했죠!
H리그 빛날 셋별 김세진-강준구

16 WORLD CHAMPIONSHIP

절치부심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적 강자 명예 회복 위해 출발!

20 WORLD CHAMPIONSHIP

세대교체 가속
세계선수권 나서는 시그널호

24 IN DEPTH

한국 남자 핸드볼, 올림픽 본선행 또 좌절
한국 핸드볼에 주는 일본의 메시지

28 TEAM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다!
조선대에 부는 긍정적인 바람

32 CLUB

핸드볼 동호인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
그리고 순천향대의 첫 걸음

37 INSIDE

핸드볼 '제대로' 배워봅니다
핸드볼 기자의 KHF핸드볼클럽 체험기

38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3년 11월 29일 | 통권 67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기대감 커진 핸드볼 H리그 2023-2024시즌 개막 초반 풍경과 체크포인트

새로 출범한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가 마침내 첫 발을 뒀다.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는 11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핸드볼연맹(총재 최태원, 이하 KOHA)은 11월 11일(토)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시시설공단 여자부 개막전, 충남도청과 상무피닉스의 남자부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에 돌입했다. 새로운 리그가 창설된 만큼 리그 운영, 팬 마케팅 등 각종 분야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시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들을 살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1

통합 마케팅으로 ‘팬 퍼스트’

먼저 리그 명칭을 살펴보자. 신한카드는 KOHA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핸드볼 H리그의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고, 리그 명칭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디지털 브랜드 통합에 발맞춰 신한카드가 새롭게 선보일 ‘신한 SOL페이’가 담겼다.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는 KOHA의 회원사로 가입한 남자부 6개 팀, 여자부 8개 실업 팀이 참가하며 기존대로 서울, 광명, 인천, 청주, 광주, 부산, 삼척 등 전국을 순회하며 치러진다.

남녀 14개 팀은 4월 21일까지 정규리그 남자부 5라운드 75경기, 여자부 3라운드 84경기 총 159경기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남자부 상위 3개 팀, 여자부 상위 4개 팀이 포스트시즌을 통해 H리그 초대 챔피언을 가릴 예정이다.

KOHA는 총 상금을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정규리그 우승 팀에 남녀 각 5천만 원, 챔피언 결정전 우승 팀에는 남녀 각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한 SOL페이 라운드 MVP 신설 등 개입상도 확대해 구단과 선수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H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팬 퍼스트’다. 리그 통합 마케팅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KOHA는 14개 구단의 마케팅 권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리그 통합 마케팅을 통해 팬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마케팅도 시행한다.

타이틀 스폰서사인 신한카드와의 Co-Marketing 진행은 물론 현장을 방문한 팬들은 경기장 입구에 위치한 이동형 상품 판매 매장에서 유니폼, 머플러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SKT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에도 H리그 홈을 개설해 가상공간에서도 팬들과 교감할 예정이다. 경기장 내에서도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후원사와 팬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전경기장에 LED A보드와 200인치 대형 전광판을 통해 후원사 노출을 증가시키고 구석 측정기를 통해 선수들의 슈팅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함으로써 팬들의 관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KOHA는 리그 모든 경기를 영상 기반 AI 트래킹을 통해 모든 팀과 선수의 경기력 통합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상 기반 데이터 솔루션인 ‘비프로 핸드볼’을 개막에 맞추어 도입할 계획이다. 비프로 핸드볼은 K리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비프로 일레븐’의 핸드볼 맞춤형 솔루션이다. 선수 개인별로 모든 경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전력 분석과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HA는 비프로 핸드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규 리그 시즌 전체를 통틀어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남녀 각 1명씩 선정해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핸드볼을 중계로 관전하는 팬들에게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간다.

한편 H리그 전 경기는 지난 11월 1일 개국한 맥스포츠(MAXSPORT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비프로 핸드볼의 빅 데이터를 중계 화면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맥스포츠 외에도 SKT의 에이닷(A.), 유튜브 브 맥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이외에도 KOHA는 리그 가치 향상과 공정한 경기운동을 위해 아시아핸드볼연맹과 협력해 국제 심판 1커플(2명)과 경기감독관 1명을 초빙하여 개막전,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활용할 계획이다.

#2

핸드볼도 본격 유료화 시대 전 경기 티켓 판매 운영

KOHA는 리그 최초로 좌석 유료화를 시행한다. 브랜드존 운영, 특화 좌석 운영 등 리그 전 경기를 유료 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좌석 유료화에도 개막전엔 많은 관중들이 찾았다. 1층에 마련된 221석 중 사전 예매로 136석이 판매됐으며 현장 발권도 꾸준히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팬들은 H리그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유료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경기장을 찾은 팬은 “티켓 가격도 저렴하고, 수입이 선수들에게 돌아간다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업 핸드볼 시절부터 리그를 즐겨 봤다는 또다른 팬 또한 “취지가 좋다”며 “선수들의 여건이 어려워진 와중에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켓 가격에 대해서도 저렴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1만원 안팎의 관람료가 10대 팬들 또한 부담스럽지 않다는 반응. 고등학생 팬은 “가격에 부담은 없어 괜찮다”며 “앞으로 핸드볼경기장에 자주 방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전 경기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3

H리그 대망의 첫 승, 첫 골의 주인공은?

개막전 식전행사에서는 핸드볼계 주요 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식 개막 행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핸드볼은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영광이 있는 국민 스포츠”라며 “H리그 출범을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되길 바란다. 핸드볼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H리그 창설을 축하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 관제로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최태원 한국핸드볼연맹 총재는 화상 메시지를 통해 “리그 선진화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H리그가 14개 남녀 실업구단과 함께 스포츠 정신과 공정을 존중하며, 팬퍼스트 정신으로 재미있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종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핸드볼 팬 대표가 지도자, 선수 대표에게 당부 말씀을 전하는 팬 퍼스트 세리머니와 함께 공정한 경기운동을 다짐하는 심판 선서도 진행됐다. 아울러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스타트 치어리딩 국가 대표 축하 공연 공연 등이 진행됐고, H리그 첫 득점 선수 맞이하기, 미니 골대 슈팅 성공 이벤트, H리그 선수 응원메시지 보내기 등 팬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2경기가 펼쳐진 개막전에서는 여자부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SK슈가글라이더즈가 부산시설공단을 31-23으로 꺾으며 첫승을 신고했고, 남자부에선 상무가 충남도청을 상대로 28-24 승리했다. H리그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기록도 쏟아져나왔다. 대망의 첫골의 주인공은 부산시설공단 외국인 선수 알리나 몰코바와 충남도청 최현근이 됐고, 부산시설공단 이현주와 충남도청 남성욱이 첫 어시스트를, SK슈가글라이더즈 김수연과 충남도청 남성철이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4

이적생 누가 있나? 리그 뜨겁게 달굴 뉴 페이스는?

여자부는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에이스급 FA 자원들의 연쇄 대이동이 펼쳐졌다. ‘국가대표 센터백’ 강경민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광주도시공사를 떠나 SK 유니폼을 입었다. 강경민은 2019~2020, 2020~2021, 2022~2023시즌 등 최근 4년간 세 차례 나 정규리그 MVP를 거머쥐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일본 국가대표 주전 라이트백 이와부치 이쿠미(등로명 레이)를 영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부치는 SK가 자매결연을 한 오모론과 합동 훈련을 하다가 발탁된 사례다.

김경진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은 “레이는 안정된 수비력이 강점으로 공격에서도 빠른 속공과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했다. 한국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선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SK호크스는 강경민과 레이를 동시에 영입하며 단숨에 ‘우승후보’로 급부상했다.

경남개발공사도 에이스 두 명을 동시에 품에 안는다. 부산시설공단에서 뛰던 국가대표 센터백 이미경이 경남개발공사로 등지를 틀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광역시청에서 활약했던 센터백 김아영도 영입, 선수층을 두껍게 했다.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쓸쓸한 재미를 본 부산시설공단은 올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알차게 보강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알리나 몰코바(에스토니아), 요아나 다 코스타(앙골라)를 영입했다. 1997년생 몰코바는 에스토니아 국가대표 레프트백이다.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에스토니아 최고 여자 핸드볼 선수에 선정된 재능이기도 하다. 1996년생 라이트백 코스타는 2018년 앙골라 국가대표로 팀을 아프리카선수권 정상에 올려놓은 바 있다. 강재원 부산시설공단 감독은 “두 선수가 국가대표 경력을 갖춰 팀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자부에선 ‘뉴 페이스’의 등장을 주목해봐야 한다. 스페인 리그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유턴한 김진영이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도 큰 화두 중 하나다. 국가대표 주전 라이트백이자 남자 핸드볼의 미래로 촉망받는 김진영은 스페인 아데마르 레온에서 2시즌 간 활약한 뒤 올 시즌부터 인천도시공사에 합류했다. 김진영을 영입하며 전력을 대폭 강화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두산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풀어내겠다는 각오다. 김진영은 하남시청과 개막전을 마친 뒤 “스페인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국내 무대에서도 형들을 잘 따라 팀이 우승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국내 리그는 어릴 때 관중석에서만 경기를 봤는데 그 때와는 다르게 관중도 많아지고 리그 운영도 한 단계 더 발전된 것 같다. 기대되는 점이 많다”고 각오를 다졌다.

SK 호크스가 야심차게 선임한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 누노 알바레스 감독이 리그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알바레스 감독은 “경기 외적인 장치들은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다. 경기력으로 보답할 차려다.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좋은 경기력을 보이겠다.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전했다.



#5

‘우승 DNA’ 두산과 삼척시청 독주 체제 또 이어질까

남녀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두산과 삼척시청의 강세가 올 시즌에도 이어질까. 먼저 남자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역시 두산이다. 두산은 지난 시즌까지 리그 8회 연속 우승을 비롯해 총 11회 우승을 차지한 절대 강자다. 그동안 부상자 발생과 초반 부진 등 여러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결국 정상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 시즌에도 두산은 이한솔, 김연빈, 정의경 등을 앞세워 개막 직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막강한 전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산을 제외한 5개 팀들은 새 리그에서 만큼은 두산의 독주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영신 상무 감독은 “그동안 ‘어우두 공식’이 계속 성립돼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H리그에선 두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레스 SK호크스 감독은 “두산이 강팀이기는 해도 항상 우승할 수는 없다. 이번엔 다른 팀들이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했고, 백원철 하남시청 감독 역시 “두산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한 2~3계단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농담으로 정상을 향한 야망을 드러냈다. 집중 견제를 받는 두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윤경신 두산 감독은 “리그 8연패 타이틀을 내려놓고, H리그의 새 출범에 맞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서 잘 준비하겠다. 즐겁고 행복한 핸드볼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자부도 코리아리그 챔피언 삼척시청의 2연패가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계청 삼척시청 감독은 “새롭게 변화한 H리그에서도 맛있는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 “해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지만,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물론 다른 팀들은 삼척시청이 아닌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서 대구광역시청 감독은 “나머지 7개 팀이 징글징글하게 (삼척시청을) 괴롭히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유일한 여성 사령탑인 김경진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도 “지난 시즌 잘 하다가 마지막에 부상 선수가 나와서 아쉬웠다.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해서 우승을 이루겠다”며 정상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민서

김진영

핸드볼 전문가 11인 설문!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가 지난 11월 11일 개막해 새로운 레이스에 돌입했다. 종목을 불문하고 리그 흥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쏟아져나와야 한다. 오프시즌 동안 리그 최고의 스타 강경민(SK슈가글라이더즈)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이적한데다

남자 핸드볼 미래 김진영(인천도시공사)의 국내 유턴에 흥밋거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핸드볼코리아는 새 시즌 개막에 앞서 핸드볼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정리. 핸드볼 코리아 편집부

설문참여인단

김동찬(연합뉴스), 박강현(조선일보), 김배중(동아일보), 김가을(스포츠조선), 정필재(세계일보), 박재범(스포츠캐스터), 이정원, 이한주(이상 MK스포츠), 이상은(맥스포츠헤설위원), 이진욱(맥스포츠포트 아나운서), 서호민(핸드볼코리아)

데뷔시즌 리그 평정한 김민서, 2년차 징크스는 없다

먼저 여자부에서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기대주는 삼척시청의 김민서다. 김은아(삼척시청)와 리그 지형도를 바꿀만한 슈퍼루키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이 가운데에 지난 시즌 김민서의 등장은 새로움이 없는 여자 핸드볼 리그에 큰 신선함을 불러일으켰다. 드래프트 전체 7순위로 삼척시청에 입단한 김민서는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정규리그에서 득점 2위(142골)와 도움 4위(97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2차전에서는 팀 내 최다인 16골을 넣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챔피언결정전 MVP를 차지했다. 신인상과 챔피언결정전 MVP를 동시에 거머쥔 첫 선수라는 기록도 남겼다.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드러나는 설문 문항이었지만, 사실상 물표가 나왔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는 “지난 시즌에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다면 신인의 티를 벗어난 김민서의 활약은 어떨지가 기대된다. 선수마다 2년차 시즌에 대한 징크스가 있다. 그런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낼지도 궁금하다”고 전망했으며 맥스포츠포 이상은 해설위원도 “당연히 김민서다. 여자핸드볼에선 김은아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선수다. 플레이스타일상,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시원하고 늘어지지가 않는 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김배중 기자도 “지난 시즌에 이미 자신의 재능을 보여줬다. 한국형 핸드볼에 부합하는 선수이다. 은퇴할 때 즈음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얻은 선수는 강경민(SK슈가글라이더즈)이다. 국가대표 주전 센터백 강경민은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 2022-2023시즌 등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국내 여자 핸드볼의 간판선수다. MVP가 된 시즌마다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등 탁월한 득점력이 강점이다. 지난 시즌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뛰던 강경민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올 시즌을 앞두고 SK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했다. 상대 팀 감독, 구단 관계자들 대부분이 “리그에서 공격력만큼은 강경민이 독보적이다. 올 시즌에도 강경민의 득점왕을 예상한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는 “올해 강경민, 이미경 등의 이적으로 여자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민을 영입한 SK슈가글라이더즈도 우승 후보 중 하나인데 FA 자격을 얻고 이적을 택한 강경민이 새로운 팀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으며, MK스포츠 이정원 기자는 “강경민의 득점력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올 시즌에도 특유의 골게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유턴’ 남자핸드볼 미래 김진영, 남자부 판도 뒤흔들 스타

남자 선수 중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언급된 가운데 투표 결과 김진영(인천도시공사)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혔다. 지난 시즌까지 스페인리그에서 뛰던 김진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국내로 유턴, 인천도시

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라이트백 포지션의 김진영은 청소년대표 시절부터 엄청난 탄력과 스피드를 앞세워 한국 남자핸드볼의 촉망받는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원 기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 본다. 스페인리그에서 쌓았던 경험이 인천도시공사가 첫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던가. 인천도시공사 베테랑 라이트백 정수영은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이전 시즌의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해설위원은 “개막전에서도 정수영은 여전한 기량을 증명했다. 화려한 패스를 보고 싶다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 무엇보다 정수영 특유의 창의적이면서 화려한 플레이는 라이트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올 시즌 정수영의 활약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배중 기자는 하남시청 득점 폭격기 박광순을 지목했다. 김배중 기자는 기록적인 부분에 입각해 “한 때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득점에 관해서는 리그 최고다. 그런 만큼 H리그에서도 득점에 관한 기록은 박광순의 이름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큰 덩치에 외모적인 부분도 이 선수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선수가 아닌 감독을 언급한 이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SK슈가글라이더즈 새 외국인 감독 누노 알바레스 감독을 지목한 김동찬 기자는 “남자부는 여자부만큼 팬덤이 두텁지가 않다. 선수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 누노 알바레스 감독의 등장이 리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언급된 선수는 정의경, 이한솔, 김동욱(이상 두산), 이요셉(상무퍼닉스)이다. 박강현 기자는 지난 시즌 두산의 8연패를 이끌며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된 이한솔을, 핸드볼코리아 서호민 기자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이요셉을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았다. 🇰🇷



정수영

1순위로 불리던 순간을 극복했죠! H리그 빗날새별 김세진 · 강준구



핸드볼 통합리그 H리그의 미래를 짊어질
신인 선수를 뽑는 '2023 남녀핸드볼 신인드래프트'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는 최초로
남자부 드래프트도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남자 13명, 여자 20명 등
총 33명이 선발됐다. 1순위의 영광은
조선대 강준구, 황지정산고 김세진이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피봇 포지션을 맡고 있다.
뜨거웠던 드래프트 현장에서 만난 강준구와 김세진의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긴장감과 후련함,
그리고 H리그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다.
인천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유니폼을 입은
둘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김보은, 원선필 선배 같은 피봇 되고파”
경남개발공사 김세진

신장 174cm의 김세진은 핸드볼 명문 황지정산고 출신으로 지난해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와 올해 아시아 여자 주니어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엘리트 선수다. 황지정산고 1년 선배 김민서와 함께 고교 무대를 평정했으며 포지션은 다르지만 선배 김민서처럼 기량 자체만 놓고 보면 즉시전력감으로 평가 받고 있다.

Q. 1순위에 지명된 소감은?

주위에서 1라운드에 뽑힐 거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셨는데 김치국 마시지 말고 아무 팀이나 뽑아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다. 경남개발공사에 피봇 포지션 선수가 1명 밖에 없어서 혹시나 경남개발공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1순위 지명 받은 순간에는 어릴 때부터 지

금까지 핸드볼을 하면서 했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런 생각에 눈물도 흘렸던 것 같다.

Q. 드래프트 현장에는 황지정산고 1년 선배 김민서(삼척시청)가 와서 축하해줬다. 김민서와는 어떤 얘기를 나눴나.

(김)민서 언니가 마침 현장에 와서 드래프트 끝나고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숙소에서 잠도 같이 잤다. 언니는 어린 나이에 성인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러웠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언니가 평소에도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

Q. 대학 진학을 고민한 적은 없었는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체대 진학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실업에 빨리 가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민을 했다. 대학도 좋지만 하루라도 빨리 실업 무대에 가서 적응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Q. 핸드볼 명문 고장 태백 출신이다. 어릴 적 이야기도 듣고 싶다. 핸드볼은 언제 시작하게 됐나.

초등학교 4학년 말이었다. 민서 언니처럼 황지초등학교 핸드볼부 코치 선생님께서 핸드볼 하면 간식 사주신다고 해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놀이하는 게 그저 재밌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몇 개월 그만뒀다. 그러다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지금 부산시설공단 지은혜, 경남개발공사 이현정 언니가 소년체전에서 우승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일신여고와 승패를 주고 받으며 물고 물리는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는데 일신여고한테 질 때마다 승부욕이 더 불타올랐다. 핸드볼에 더 빠져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Q. 원래 포지션은 피봇이었나.

어렸을 때는 백 포지션을 많이 소화했다. 중학교 이후에 피봇을 보기 시작했는데 학교 선수가 부족하기도 했고 내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체격 조건이 뛰어나 선생님께서 피봇을 시키셨다. 중학교 1학년 때



163cm였는데 잠깐 쉬고 돌아오니깐 170cm까지 훌쩍 컸다. 발 사이즈도 260mm까지 커서 맞는 신발 사이즈를 찾기 어려웠다(웃음).

Q. 어렸을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실력적으로는 언제 가장 큰 성장을 이뤘나.

중학교 때는 정소라 선생님 배우면서 아직 핸드볼 끝까지 할까 확신 없었을 때 핸드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움주셨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춘삼 선생님께서 1년 반 동안 지도 받았는데 그 때 피봇이 갖춰야 할 기술과 기본적인 캐치 능력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 이설희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반복 훈련을 했다. 두분께 부족함 없이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해 태백산기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때 실력이 부쩍 많이 향상됐던 것 같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 우승도 경험하면서 자연스레 자신감도 얻게 됐다.

Q. 이제 H리그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팬으로서 경기를 보다가 선수 입장이 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H리그 출범 후 첫 신인이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든다. 선수 입장할 때 음악이 나오거나 중계를 통해 나의 플레이가 비춰질 모습이 새로울 것 같다.

Q. 경기 내적인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솔직히 말해서 피봇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골을 많이 넣거나 수비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포지션은 아니다. 분명 언니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적인 몸 싸움을 열심히 할 것이며 신인의 패기로 부딪쳐볼 생각이 다.

Q.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리빌딩을 진행 중인 팀이다.

베테랑 골키퍼이신 오사라 선배님이 계신다. 오사라 선배님께서 워낙 든든히 잘 막아주시기 때문에 같이 뛰게 된다면 더 힘을 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막내답게 언니들 사이에서 파이팅도 많이 하고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고 싶다.

Q. 닳고 싶은 선수는 누구인가.

김보은(삼척시청), 원선필(광주도시공사) 선배님이다. 김보은 선배님은 수비 성공 뒤 속공 치고 나가는데 빠르시다. 원선필 선배님은 위치 선정이 뛰어나시다. 두 선배님의 장점만 쏙 빼닮고 싶다.

Q.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해달라.

우선 핸드볼을 오래하고 싶기 때문에 부상 없이 커리어를 이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코트에서 경기를 뛰는 것이 한창 즐거울 때다. 즐거움이 발휘되려면 승리와 패배가 반복 되어야 하는데 승리의 기쁨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피봇으로서 넓게 동료들의 찬스를 봐주고 코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김세진

2005년 12월 6일생
 174cm
 피봇/레프트백
 황지정산고 출신
 '2023-2024 핸드볼 H리그'
 신인 드래프트 여자부
 전체 1순위
 경남개발공사 입단



강준구

2001년 7월 31일생
184cm
피봇
전북제일고 출신
23-24 핸드볼 H리그
신인 드래프트 남자부
전체 1순위
인천도시공사 입단



“기대치 큰 것 알고 있어, 신인답게 패기있게!”

인천도시공사 강준구

강준구는 대학핸드볼 최고 피봇이다. 단단한 체구를 바탕으로 몸싸움, 위치선정이 탁월하며 동기생 유효인과 함께 조선대를 대학핸드볼 정상권에 올려놓았다. 강준구는 어릴 때부터 될성 부른 떡잎이었다. 핸드볼 명문 전북제일고 출신인 그는 2018, 2019년 청소년 대표팀 후보에 이어 2021년 주니어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등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Q. 처음 열린 남자드래프트에서 영광의 1순위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최초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1순위로 뽑힐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1순위로 뽑히게 돼 기쁘다. 가장 먼저 뽑힌 만큼 H리그에서 기대에 걸 맞는 활약을 보여드리고 싶다.

Q. 1순위 지명으로 모교인 조선대 위상도 드높였다. 더욱이 동기인 유효인과 함께 드래프트 지명을 받게 돼 더 의미있을 것 같은데.

4학년은 나와 (유효)인이 두 명이였다. 우리 둘 다 드래프트에 지명돼 더 기쁘다. 효인이가 마지막 순번에 뽑혔지만 가서 열심히하면 누구든 주전을 꿰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인이한테도 H리그에 가서 꼭 성공하자고 얘기했다. 조선대가 그동안 한국체대나 경희대에 비해 저평가받기도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를 계기로 우리 후배들도 프로 선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Q. 대학 4년 동안 코로나19 등 우여곡절을 지나 졸업을 앞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본다면?

3학년 때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쏙 빠졌다.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김오군 감독님을 비롯해 후배들이 옆에서 잘 도와준 덕분에 몸 상태를 잘 회복해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Q. 올해 조선대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강준구의 코트 안팎 활약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주장 효인이가 따끔하게 한마디씩 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나는 약간 후배들을 달래는 엄마 같은 역할이다. 그런 시너지가 잘 이뤄졌고 밑에 후배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Q. 핸드볼 명문교인 전북제일고를 졸업했다. 그렇다면 핸드볼은 어떻게 시작했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다. 당시 키가 170cm가 넘었는데 아무래도 체격조건이 좋으니까 중학교 핸드볼 코치님께서 핸드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다. 먹성 때문에 시작하게 된 케이스다(웃음).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많았다. 많이 먹어도 되냐 물어봤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서 시작했다.

Q. 인천도시공사는 정수영, 심재복, 윤시열 등 베테랑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다.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포지션마다 국가대표 등 산전수전 다 겪으신 베테랑 선배님들이 있으신데 선배님들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신인답게 패기 있고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눈에 띄고 싶다. 최선을 다하겠다.

Q.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인천도시공사 정진호 선수를 좋아한다. 나와 같은 포지션인 피봇이고 플레이스타일도 비슷해서 좋아하게 됐는데 버티는 힘과 공 캐치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다. 그런 점들을 닮고 싶다.

Q.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팀 분위기는 어떻게 정강욱 감독은 어떤 말을 해주던가.

형들 중심으로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감독님께서도 형들이 하던 역할을 내가 하게 될거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잘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형들이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과 동료들에게 토크하는 능력을 배우고 싶다.

Q.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팀원들의 강점을 뽑아내는 플레이를 통해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일조하고 싶다. 성실한 자세로 해마다 성장세를 거듭해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싶다. 🏆



총 33명 취업 성공, 사상 최초 핸드볼 H리그 남녀드래프트 결과는?

사상 최초로 동시에 열린 남녀 드래프트에서는 강준구와 김세진이 1순위의 영광을 안은 가운데 남자부에선 충남도청이 1라운드 2순위로 2023 태백산기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경희대의 186cm 장신 이혁규를 지명했다. 이혁규는 피봇과 레프트 백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어 하남시청이 김찬형(한체대), SK호크스가 정미르(원광대), 두산이 조운식(한체대)을 차례로 1라운드에 지명했다. 이어진 여자부 드래프트에서는 조은빈(한체대)이 2순위로 서울시청의 지명을 받았다. 조은빈 역시 2022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핸드볼 월드컵 우승 및 최우수선수상(MVP) 수상, 2019 아시아여자 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 등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기대주자. 이어 SK슈가글라이더즈가 박수정(휘경여고), 인천시청이 임서영(인천비즈니스고), 광주도시공사가 김서진(일신여고), 대구시청이 정연우(경남체고), 부산시설공단이 최유나(한체대)를 차례로 1라운드에 지명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남자 13명, 여자 20명 등 총 33명이 선발됐다. 지명률은 남자 65%(20명 신청 13명 지명), 여자 91%(22명 신청 20명 지명), 남녀 평균 79%를 기록했다.



절치부심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적 강자 명예 회복 위해 출발!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프리뷰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가 11월 29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며 12월 17일까지 약 3주간 32개국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실력을 겨룬다. 세 개의 나라가 함께 핸드볼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78년 대회부터 세계선수권 무대를 놓친 적이 없다. 올해가 20번째 대회 출전이다. 글. 박강현 조선일보 기자 사진. 국제핸드볼연맹



대표팀에 '피로 누적' 주의보

원래 4년제로 진행되던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는 1993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5년 한 차례 대회 정상에 올랐는데, 당시 비유럽권 국가로 최초로 대회를 제패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2013년엔 브라질이 사상 두 번째 비유럽권 국가로 우승을 맞았다. 직전 대회인 2021년에 한국은 32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지난 11월 13일부터 헨리크 시그넬(47스웨덴) 감독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선수단은 21일 프랑스로 출국해 유럽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29일 조별리그가 펼쳐지는 노르웨이로 이동한다. 시그넬 감독은 이번 훈련에서 선수 개인별 몸 상태를 파악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선수 간 호흡이나 전술·전략 훈련보다도 선수 컨디션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배경에는 대표팀이 올해 유독 많은 국제대회를 치르는 등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데 있다. 대표팀은 지난 8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을 시작으로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치러진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서 대표팀은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일본을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두며 참가 5개국 중 1위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다. 세계 남녀 핸드볼 역사에 전례가 없는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쾌거를 이뤘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개근했다. 대표팀은 이후 훈련을 거쳐 약 한 달 반 만에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당시 순항하며 결승까지 올랐지만, 일본에 막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예선 한 달여 만에 일본이 반격에 성공한 셈이다.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항저우 대회까지 총 아홉 번 중 두 번 우승을 놓쳤는데, 항저우가 그 두 번째 대회였다.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선 동메달을 딴 바 있다.

히로시마 및 항저우 멤버들은 귀국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곧바로 11월 개막하는 국내 H리그 준비를 위해 각 팀 자체 훈련에도 나섰다. 국내외적으로 실 틈 없는 일정을 견뎌내고 있는 셈이다. 원래 아시안게임과 선수권대회는 겹칠 일이 없었지만,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사태로 한해 미뤄지며 대표팀은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게 됐다. 숨 가쁜 일정에 선수들은 물론이고 핸드볼 관계자들마저 허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에 동행했던 강경민(27·SK슈가글라이더즈), 이미경(32·경남개발공사), 김민서(19·삼척시청) 등 주축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강 전력’이라고는 자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표팀의 유일한 유럽파이자 ‘에이스’ 류은희(33형 가리 교리)가 합류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각종 대회로 선수들 피로도가 누적된 게 사실”이라며 “선수권대회가 끝나면 국내로 돌아와 리그 경기도 뛰어야 되는 만큼 부상 방지에 신경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피드 핸드볼과 측면 공격으로 ‘높이’ 뚫어라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등이 아직 한국을 넘보지 못하는 구기(球技) 종목이 여자 핸드볼이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41승 1무 6패, 중국엔 37승 3무 3패라는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과 실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사실이 증명됐다. 아시아에서도 최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순 없다.

세계선수권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핸드볼 강호들이 모여 경쟁하는 무대다.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대들이 더욱 많다. 스웨덴 여자 대표팀 감독을 지낸 시그넬 감독은 지난 8월 아시아 예선 일본 전 이후 “우리보다 잘하는 유럽 국가들이 10~15개는 더 있다.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선 1년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나는 내가 틀리길 바란다. 나는 유럽 팀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겐 그만큼 발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개최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대회 2연패에 이어 통산 5번째 우승을 꿈꾼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노르웨이에 패한 프랑스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회 준결승 이상까지 올라 결국 2019년에 챔피언 자리에 오른 네덜란드도 정상을 겨냥한다. 또 다른 개최국인 덴마크와 스웨덴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크 호스’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린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A~H조 가운데 C조에 편성됐다. 각 조 상위 3개국 이후 진행되는 결선 리그에 오른다. 결선 리그에선 또 다시 6개국씩 총 4개의 조로 분류된 뒤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진출한다. 여기서부터 와나 무다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이 홈팀의 일방적인 응원도 등에 업고 출격하는 노르웨이를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표팀은 비교적 약체인 오스트리아와 그린란드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조별 예선 일정

C조	경기일자	시간	상대팀
1차전	2023.11.30	2:00	오스트리아
2차전	2023.12.02	2:00	그린란드
3차전	2023.12.04	4:30	노르웨이

역대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한국 성적

1978년	10위	2005년	8위
1982년	6위	2007년	6위
1986년	11위	2009년	6위
1990년	11위	2011년	11위
1993년	11위	2013년	12위
1995년	우승	2015년	14위
1997년	5위	2017년	13위
1999년	9위	2019년	11위
2001년	15위	2021년	14위
2003년	3위	2023년	?

를 잡고 2승1패로 결선 리그에 올라 최소 8강 진출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최근 8강에 든 건 2009년 중국 대회로 당시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와 결선리그 경기를 모두 노르웨이에서 치른다. 나라 간 이동 피로도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유럽 핸드볼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선수들로 구성된 아시아 핸드볼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럽 팀은 대체로 평균 신장이 180cm가 넘는 등 ‘피지컬’과 ‘높이’로 압도하는 핸드볼을 구사한다. 한국 대표팀에서 키 180cm가 넘는 선수는 류은희(181cm), 강은혜(185cm), 골키퍼 정진희(181cm)·김수연(182cm) 정도다.

한 핸드볼 관계자는 “애초에 (유럽 팀과는) 체구와 (핸드볼) 문화가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를 살린 날렵한 ‘스피드 핸드볼’과 측면 공격을 주무기로 삼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첫 한두 게임에선 폭발적인 기량을 과시하지만 이후 체력적으로 지친다는 인식도 유럽 팀 사이에 있다”며 지구력을 끌어 올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리 올림픽 앞두고 ‘실전’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내년에 남자 축구와 함께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는 ‘유이한’ 구기 종목 대표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남녀 농구는 본선행이 좌절됐고, 남녀 배구도 세계 랭킹이 너무 낮아 사실상 파리행이 어렵다. 이달 초엔 여자 축구도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 실패했다. 남자 축구는 내년 4월에 아시아 예선을 치른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파리 올림픽을 약 7~8개월 앞두고 대표팀이 세계적 강호들과 맞붙으며 기량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래 올림픽 본선 무대를 놓친 적이 없지만, 메달을 딴 건 15년 전 2008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이 마지막이다. 금메달은 1988년과 1992년 두 번, 은메달은 1984년과 1996년·2004년 세 번 땀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최강의 자존심을 넘어 세계적 강자로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세대교체 가속...세계선수권 나서는 시그널호, 실패 잊고 다시 뛴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다시 본격적인 향해에 나선다.

파리올림픽을 비롯해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도 그중 하나다.

헨리크 시그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 지난 11월 13일, 진천선수촌에 다시 소집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젊어진 평균연령, 세대교체 예고

아시안게임 실패를 통해 더 이상 아시아의 맹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한국으로서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11월 13일, 진천선수촌에 소집하기 앞서 대한핸드볼협회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는 17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대표팀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교체다. 처음 명단이 발표되자 많은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

미경, 김선화, 강경민 등이 빠지고 우빛나, 이혜원, 조은빈, 김세진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기 때문이다. 물론 강경민과 김민서의 경우 부상으로 이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과감한 세대교체를 확인한 뒤 선수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생애 첫 대표팀에 합류한 한 선수는 “명단을 처음 확인하고 언니들이 많이 빠지고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라 조금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30대 베테랑 선수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다. 2024 파리올림픽을 겨냥한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희망이 생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만 여자대표팀 사령탑 시그넬 감독이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시도한 이유는 한마디로 ‘경험’이었다.

진천선수촌 훈련 도중 만난 시그넬 감독은 “보다시피 팀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다. 미래를 위한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한국 여자핸드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며 “아시안선수권대회처럼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이 큰 무대를 뛰어봄으로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핸드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종목이다. 7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좋은 결과보다는 선수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인지시켜주고 싶다. 그런 점들이 선수들에게 잘 인식된다면 경기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지난해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이자 지난해와 올해 각각 신인드래프트 1순위인 이혜원과 김세진도 포함되어 있다. 시그넬 감독은 “이 선수들을 비롯해 (우)빛나 등 젊은 선수들은 두려움이 없다. 뭘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심어져있다. 지금 대표팀에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신장이 큰 팀들을 상대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상, 부진 등의 이유로 대표팀에서 탈락한 선수들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선수들을 조합해서 팀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대표팀 주축된 신은주와 송지영 “낯설지만 후배들 잘 챙겨볼게요”

이번 대표팀 주장은 레프트 윙 신은주가 말한다.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로 처음으로 주장직을 맡게 된 그는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무래도 20대 초중반 젊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다 보니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은주는 이전 대표팀과 현재 대표팀의 차이를 묻자 “주장으로서 팀이 잘 융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려고 한다”며 “아무래도 언니들이랑 대표팀 생활했을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젊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플레이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개인 능력에 의존한 핸드볼을 했다면 어린 선수들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유기적인 패스워크 위주로 플레이를 펼친다 오히려 연차가 있는 우리가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에 스며들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한국 여자핸드볼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곤 하는데 저희한테도 뼈아픈 상처가 됐고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후배들에게까지 이 짐을 짊어주고 싶지는 않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대표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훈련 내내 파이팅을 불어 넣으며 분위기를 주도한 부주장 송지영도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저도 겪어봤지만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 기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후배들에게 말도 많이 하려고 자신감을 더 북돋워주려고 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대표팀은 11월 21일 프랑스로 출국, 4개국 컵대회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쌓은 뒤 29일 노르웨이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두 선수는 “여자핸드볼이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합류한 후배들을 잘 이끌어 벌어진 격차를 다시 좁혀나가야 할 것 같



다”며 “아시안게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팬들께서도 실망하셨을 테지만 새롭게 시작될 대표팀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골키퍼	박새영(삼척시청) 정진희(서울시청)
레프트백	우빛나 조수연(이상 서울시청)
라이트백	강은서(삼척시청) 류은희(형가리 교리) 이혜원(대구시청)
센터백	조은빈(한국체대)
레프트윙	신은주(인천시청) 신진미(부산시설공단) 윤예진(서울시청)
라이트윙	송지영(서울시청) 전지연(삼척시청)
피봇	강은혜(SK) 김보은(삼척시청) 김세진(황지정산고)



한국 남자 핸드볼, 올림픽 본선행 또 좌절 한국 핸드볼에 주는 일본의 메시지

한국 남자 핸드볼이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행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홀란드 프레이타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23-34로 크게 졌다. 결국 3위를 한 한국은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무엇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일본에 최근 주요 경기에서 잇달아 패배한 게 뼈아프다. 10월 초 여자 핸드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금메달을 내준 데 이어, 한 달도 채 안 돼 남자 대표팀도 일격을 당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본전 참패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확실히 있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한국 남자 핸드볼, 올림픽 본선행 또 좌절 일본에 11골 차 완패

홀란드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우승팀이 파리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2위 국가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 모여서 치르는 최종 예선에 나간다. 결국 3위를 한 한국은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한국 남자 핸드볼은 이로써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 이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2024년 파리 대회에 모두 나가지 못하게 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남자 핸드볼은 이후 조금씩 국제 경쟁력이 하락, 이제는 아시아 정상에서도 밀려났다. 아시안게임은 2010년 광저우 대회 금메달, 아시아선수권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우승이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귀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카타르가 아시아 최강으로 올라섰고, 바레인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세가 급성장하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4강을 장담하기도 어렵게 됐다.

아시안게임에서는 2014년 인천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동메달로 한 계단씩 밀리더니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아시안게임 노메달은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이고, 아시안게임 4강에도 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선수권도 마찬가지다. 2012년 우승 이후 2014년과 2016년 대

회에는 연달아 4강 진출에 실패했고, 2018년 3위, 2020년 준우승 등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듯하다가 2022년 대회에서는 또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시아에서 성적이 이렇진대 세계 무대 성적은 따져볼 것도 없다. 최근 두 차례 세계선수권에서 32개국 중에 2021년 31위, 올해는 28위에 머물렀다.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 이번 올림픽 예선을 우리나라가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과 준결승에서 23-34, 무려 11골 차로 참패를 당한 결과로 인해 충격이 컸다. 차라리 4강에서 카타르나 바레인처럼 최근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는 나라와 만나 졌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을 수도 있지만 일본전 완패에 탈락의 아픔이 더 커진 결과가 됐다. 게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여자 대표팀도 일본에 19-29, 10골 차로 무너

지는 등 최근 남녀 핸드볼이 모두 일본에 두 자릿수 득점 차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 남자 핸드볼은 지난해 일본과 정기전에서 일본에서 열린 1차전을 19-25로 졌고, 홈 경기로 치른 2차전은 33-23으로 이겨 설욕했다.

외국인 감독 영입과 혼혈선수 발탁 급성장한 일본 핸드볼, 이유 있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이 남녀 모두 핸드볼만큼은 일본에 비해 우위라고 자부했지만,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일본의 전력이 급상승했고 결국 최근 맞대결에서는 10골 차 이상으로 패하는 결과를 떠안았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남녀 모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 대표팀 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남자 대표팀은 다구르 시귀르드손(아이슬란드) 감독, 여자는 울리크 커글리(덴마크) 감독이 2017년부터 일본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외국인 사령탑을 영입한 일본은 전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남자 대표팀의 경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3·4위전에서 우리나라와 맞대결해 23·24, 1골 차로 패하는 등 대등한 전력을 선보였다. 또 2020년 아시아선수권 4강에서는 연장전 끝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34·32로 물리치는 등 사실상 전력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았고, 올림픽 예선에서는 우리가 무려 11골 차로 크게 패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 예선 조별리그에서 바레인을 27·26으로 꺾었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바레인을 또 32·29로 제압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전력을 뽐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의 난적들을 연파했고 결선리그에서 카타르, 준결승에서 바레인에 패했지만 접전을 벌였다.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수도 있지만 일단 외국인 감독 영입 이후 일본 핸드볼의 전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2020년으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감독을 기용한 것이 유럽의 선진 핸드볼을 접목하며 대표팀 전력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다수 혼혈 선수들의 국가대표 발탁에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번 파리올림픽 예선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한 애덤 바그는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수다. 한국과 준결승에서 6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으며 2021년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다. 또 도쿄올림픽에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레미 도이가 일본 국가대표로 나왔다. 도이는 당시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사실 혼혈 선수의 대표팀 발탁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한국 국가대표로 뛴만한 선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재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고등 켜진 한국 핸드볼, 저변 확대만이 살 길이다

일본과 같은 외국인 감독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남녀 대표팀 모두 외국인 사령탑을 기용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이후 열린 주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차이점이다.

여자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우승,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이는 외국인 감독 영입 전에도 냈던 결과고, 오히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10골 차로 패한 점이 충격적이었다. 사실 일본 핸드볼에 역전을 허용하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위기인 것은 국내 저변의 차이가 크다.

인구도 많은 일본이 혼혈 선수도 다수 발굴하는 등 핸드볼 저변이 우리보다 훨씬 두껍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표팀 전력이 더 강해질 가능

성이 크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핸드볼에 입문할 좋은 자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운동 신경이나 체격 조건이 좋은 어린이들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야구나 축구, 골프 등 인기 종목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우리나라 핸드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의 국제 대회 성적으로 다음 세대에 ‘롤 모델’이 될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선 어린 선수들을 일찍 발굴해 핸드볼에 입문할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 카타르의 귀화 선수들이나 일본의 혼혈 선수들과 같은 전력 강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노력해야 한다.

귀화 또는 혼혈 선수들의 발탁은 국내 선수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대표팀 전력 강화의 대등적인 차원이고, 어차피 여러 명을 이런 식으로 보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감독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여러 주변 여건이 다르겠지만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파울루 벤투 감독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4년간 독심 있게 밀어붙였다. 월드컵 준비 기간에 여러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벤투 감독에게 신뢰를 거두지 않은 결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성과를 냈다.

반면 우리 핸드볼은 2022년 5월 선임한 여자 대표팀 김 라스무센 감독을 올해 초 해임했다. 해임 과정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너무 일찍 경질 카드를 빼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만했다. 한번 외국인 사령탑을 기용하기로 한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밀어붙여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 핸드볼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2010년대 접어들며 불거진 문제지만 이번 남녀 대표팀의 일본전 동반 참패로 위기 경고등이 더 세게 울린 상황이다.

올해 11월 통합 리그인 H리그가 새롭게 출범했는데도 최근 국제 대회 성적이 부진해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남녀 핸드볼이 다시 분발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다! 조선대에 부는 긍정적인 바람

과거 조선대는 대학핸드볼에서 손꼽히는 강팀이었다.

스타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했고, 최근에는 박순근(SK호크스), 민병탁(상무피닉스) 등을 앞세워 누렸다.

이후 하락세를 겪으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달랐다.전국대학 통합리그 2위, 전국대학 통합선수권대회 3위 등 모처럼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자 핸드볼 H리그 드래프트에서는 졸업 예정자 강준구가 전체 1순위로 지명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 입장에선 최고의 한해를 보낸 것이다. 굵직한 일정들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조선대 핸드볼부를 <핸드볼코리아>가 찾아갔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핸드볼코리아>가 조선대를 찾은 날은 11월 7일이었다. 올해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조선대 핸드볼부는 휴식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다. “대회 일정이 모두 끝난 지금, 선수들이 학업에 집중하면서 동계 훈련에 앞서 보강 훈련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훈련 근황을 소개했다. 김오균 감독(37)은 조선대 출신으로 졸업 후 일찍이 지도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주류가 지배하고 있는 스포츠계에서 비주류의 성공은 쉽지 않다. 그러나 김오균 감독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앞만 바라보며 성공을 꿈꿨다. 먼저 자신을 소개한 김오균 감독은 “나 역시 조선대가 모교다. 학교 졸업 후 핸드볼 쪽으로는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일찍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보라고 자리를 알아봐주셔서 2010년도부터 4년 간 초등학교(광주동성초), 중학교(조선대부속중, 조선대여자중)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박도현 감독님이 정년 은퇴를 하시고 뒤를 이어 대학 팀을 맡아보라고 하셔서 그 때부터 조선대 감독직을 맡기 시작했다.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고 소개했다. 그가 조선대에 부임했을 당시 나이는 29살에 불과했다. 김 감독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핸디캡 아닌 핸디캡이었다. 김 감독은 “감독 초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래도 혈기왕성하고 매사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버텼던 것 같다. 물론 열정이 다소 과해 선수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하하. 선수들도 잘 따라와줬다”고 지난 10년

을 돌아봤다. 김오균 감독과 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 수 있었다.

‘원 팀(One Team)’은 조선대의 최대 강점이자 김오균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다. 김오균 감독을 필두로 4학년 주장 유효인, 강준구, 그리고 벤치에 있는 신입생 막내들까지 시종일관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한동안 정체를 숨기고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우선 나부터가 분위기 처지지 않게끔 파이팅을 하려고 노력한다. 또, 4학년 강준구, 유효인 선수가 만형으로서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며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줬다. 여기에 1-2학년 선수들이 훌륭하게 융화됐다. 위에 형들이 잘 끌어주면, 후배들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웠다.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는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속공을 연결하는 빠른 핸드볼이 잘 구현됐다”며 코트 안팎에서의 비결을 밝혔다. 말을 이어가 김 감독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도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무엇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 실력이 뒤처지더라도 매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지도자 입장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는 것이 또 나의 몫이기도 하고. 덕분에 부임 이후 누구 하나 뺄뻐해지는 학생 없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난 10월 26일, 남자 핸드볼 사상 처음으로 열린 ‘2023-2024 핸드볼 H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학년 유효인과 강준구가 모두 실업 팀





들의 부름을 받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이중 강준구는 H리그 신인 드래프트 최초의 1순위의 영예를 안게 됐다. 덕분에 경희대, 한국체대 등 주류 대학들에 가려져 있던 조선대의 위상과 핸드볼관계자들이 관심이 한껏 올라갔다. 드래프트장에서 누구보다 기뻐한 김 감독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웃음). 1순위로 (강)준구가 뽑힌건 너무 좋은데 (유)효인이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손발이 떨려 초조한 상태로 같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남시청에서 효인이 이름을 호명하더라. 순간 너무나 기뻐고 또, 1학년 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딛고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줬는데 4년 간 나와 함께 했던 생활이 스쳐지나가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드래프트 당시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4학년 유효인과 강준구에 대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준구와 효인이가 우리 학교에 오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 준구가 엄마면 효인이는 아빠 같은 성격이다. 효인이가 주장으로서 팀 전체적인 기강을 잡는 반면, 준구는 세세한 부분을 신경쓰며 후배들을 끌고간다. 두 선수의 시너지가 잘 맞아 떨어져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많이 그리울 것”이라며 “4년동안 믿고 따라와줬고 H리그에 가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상 없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스승으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좋은 성적으로 내년 전망 역시 밝은 조선대이지만,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 팀 특성상, 선수 수급 문제에서는 조선대 역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김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감독은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보니까 선수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그래도 올해 대학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드래프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선수들로 하여금 조선대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졸업을 앞둔 유효인과 강준구가 팀을 떠나는 건 분명 큰 전력 손실이지만 여전히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즐비한 조선대다. 고학년과 저학년의 균형을 잘 갖춘 조선대는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만 하다. 김 감독은 “주장 예정인 고예일을 중심으로 심거룡, 김정우, 강륜현 등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센터백인 심거룡의 경우, 벌써부터 실업 팀에서 눈독을 들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아마 이 선수들이 내년이 되면 기량이 만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올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또, 지도자로서 제자들이 좋은 팀에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

3학년 고예일

“중, 고등학교 때 주장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대학교는 선수 숫자도 많고 또 내가 타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주장직을 잘 맡을 수 있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들긴 한다. 그래도 졸업하시는 선배들이 좋은 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에 걸맞게 나도 열심히 주장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준구 형과 효인 이 형이 특유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좋은 성적이 난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 못한 우승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나 역시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보겠다.”



MINI INTERVIEW

주장 유효인

Q. 올해 한 해 조선대 성적이 좋았습니다. 주장으로서 뿌듯할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4년을 돌이켜 본다면.

사실 준구와 내가 코로나 학번이라 저학년 때는 굉장히 운동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혹여나 실력이 떨어질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2021년도부터 코로나가 수그러 들고 리그가 재개됐고 올해 졸업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내서 유종의 미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

Q. 지금 라이트 윙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데요. 어떻게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핸드볼을 처음 시작했다. 핸드볼 훈련으로 인해 오전 수업 시간을 빠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시작을 했던 것 같다.

Q. 핸드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나만의 하이라이트 필름 영상이 있다. 경기를 복기하며 내가 잘했던 장면들을 보면 더 멋있어 보이고 다음 경기 때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핸드볼 선수로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Q. 조선대만의 팀 컬러가 있다면.

김오균 감독님께서 워낙 화끈하시다. 운동할 때는 운동에만 집중하고 코트 밖에서는 친구처럼 편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

신다. 그리고 대회에 출전하면 감독님과 선수, 스태프까지 모두가 함께 된다. 매 순간 파이팅을 외치며 분위기가 처지게 않게끔 만들어주신다.

Q.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에 뽑혔다. 지명됐을 당시 기분은 어땠나.

사실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름이 불리지 않아 초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뽑히게 됐는데 정말 기쁘다. 지금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선수일지 몰라도 H리그에 가서는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

Q. 드래프트에서 100% 취업률을 기록해 조선대 위상도 올라가게 됐다. 뿌듯함이 클 것 같다.

항상 조선대하면 성적이 낮은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올해 대학리그와 드래프트를 계기로 그런 이미지를 깰 수 있어 기쁘다.

Q. 이제 정 들었던 조선대를 떠나 하남시청으로 적을 옮기게 된다. 조선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성격상 워낙 예민하고 후배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는 선배였다. 1년 동안 내 성격 받아주느라 고생 많았고 이탈자 없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락 자주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핸드볼 동호인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 그리고 순천향대의 첫 걸음

제15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가 11월 4~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핸드볼을 사랑하고 즐기는 전국 각지의 동호인들은 경쟁과 화합의 장에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우승의 달콤함을 맛본 팀도, 아쉽게도 빠르게 짐을 싣고 떠난 팀도 있었던 가운데 설레는 첫 도전에 나선 팀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순천향대학교 핸드볼 팀이었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김희수 기자, 대한핸드볼협회

치열한 경기 이후에는 전략 회의까지! 뜨거웠던 대회 열기

제15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는 남·여 챌린저부(선수 출신 출전 불가능)와 남자 챔피언부(선수 출신 출전 가능)로 나뉘어 열렸다. 총 36개의 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는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 A코트와 C코트, 체육문화 연구동 체육관까지 총 세 곳의 경기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기와 경기 사이 간격도 거의 없이 잇달아 계속됐다. 점심 시간대에 진행된 치어리딩 공연 시간을 제외하면 세 개의 코트가 대회 기간 내내 핸드볼로 가득했던 셈이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경기 시작 10분 전부터는 미리 체육관 밖으로 이동해 물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풀었고, 패스 플레이를 점검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면 핸드볼코리아리그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탓에 몇몇 경기에서는 양 팀에서 부상자가 속출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나왔다. 경기가 종료돼도 선수들에게는 숨 돌릴 시간이 없었다. 관중석으로 이동해 간단한 음식들로 요기를 한 뒤 다음 경기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과 전략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는 또 몸을 풀고, 경기를 치르는 반복되는 일정이 계속됐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결

과와 상관없이 밝았다. 서로를 격려하고, 긴장을 풀기 위한 농담도 건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회를 치렀다.

치열했던 이틀간의 열전 끝에 세 부문 우승팀도 가려졌다.

가장 먼저 치러진 남자 챔피언부 결승전에서는 인천연합OB가 무안 HB를 10-8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두 번째로 치러진 여자 챌린저부 결승전에서는 Seoul EHC가 하계중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우승하계를 18-10으로 제압했다. Seoul EHC는 전 멤버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결승전은 남자 챌린저부 결승전이었다. 홈팀 서울대학교 핸드볼부와 경북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섬마울이 맞붙었다. 서울대가 16-13, 3점 차로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제15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 입상팀

구분	남자 챔피언부	여자 챌린저부	남자 챌린저부
1위	인천연합OB	Seoul EHC	서울대학교 핸드볼부
2위	무안HB	우승하계	섬마울
3위	세븐스타즈OB Team.Hoteli	서울대학교 핸드볼부 상암고OB	경북대A 판타지아부천

“하나, 둘, 셋, 과학!”

순천향대 핸드볼부가 내디딘 의미 있는 첫 걸음

수많은 팀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찾은 가운데, 전국 단위 대회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팀도 있었다. 순천향대학교 핸드볼부다.

순천향대 핸드볼부는 순천향대 스포츠과학과 재학생들 중 핸드볼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이다. 스포츠과학과장인 심윤식 교수가 감독을 맡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눠 챌린저부에 참가했다. 순천향대는 남자팀이 8강까지 오르며 2승

2패를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여자팀은 2패에 머물며 떨어진 첫 전국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순천향대 심윤식 감독은 “팀을 꾸린 지 한 달 정도 됐다. 저는 서울대 91학번 핸드볼부 출신이고, 유럽에 유학 갔을 때도 유럽 핸드볼 팀에서 함께 활동했었다. 그래서 학과에서 핸드볼 수업을 맡고 있었는데, 수업 이상의 조직적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과 마음을 맞춰 대회에 나섰다”고 출전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나는 자주 와본 곳이지만, 우리 팀 선수들은 이 곳에 처음 와봤을 것이다. 또 실제로 경기를 뛰어보면서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과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대회 참가 목적 중 하나였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유 역시 설명했다.

“즐거자는 마음으로 출전한 대회였다. 그런데 승리까지 거둬서 놀랐다”며 웃음 지은 심 감독은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핸드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공 하나하나 가치를 새롭게 느꼈을 것이다. 또 물타리 안에서 본인들끼리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다. 그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자 보람”이라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간 선수들을 뿌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는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다음 대회를 준비할 것 같다. 다만 학년 별로 골고루 선수 구성이 돼야 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학년들을 찾아서 육성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계속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 선수들은 열심히만 해주면 된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심 감독은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수들에게 첫 출전 기념 사진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흔쾌히 응하며 다 함께 모여 포즈를 취한 선수들은 셋을 센 뒤 우렁차게 “과학!”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심 감독은 “우리 팀이 스포츠과학과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라서, 파이팅 구호를 과학으로 정했다”는 설명을 들려주며, 선수들과 함께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



핸드볼 '제대로' 배워봅니다

체대 출신 핸드볼 기자의 KHF핸드볼클럽 체험기



핸드볼 기자들에게 11월은 농부들만큼 바쁜 계절이다. 개막에 맞춰 특집호를 분주히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시즌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핸드볼을 전담한지 두 시즌째를 맞은 기자는 문득 '그래도 핸드볼 기자인데 한 번쯤은 직접 체험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점 망설임 없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서기자의 핸드볼 현장 학습' 첫 번째 편은
 대한핸드볼협회가 운영하는 <KHF 핸드볼클럽> 방문기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호빈 기자

역시나 순조롭지 않았던 출발

훈련 시작 시간은 오후 6시였다. 약 한 시간 정도 이동 후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핸드볼보조경기장>에 도착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동호인 선수들이 일찍이 경기장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었다. 코트 위에서 “쿵쿵쿵” 울리는 드리블 소리와 함께 빠른 템포의 음악이 귀를 찔렀다. 음악만으로도 사람을 흥겹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이후 사무실로 이동해 KHF핸드볼클럽 성인동호인부 메인코치를 맡고 있는 강지혜 코치와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앞서 스트레칭부터 시작됐다. 과정은 익숙하지 않았다. 뻣뻣한 몸을 보고서 코치들도 조금 당황한 눈치였다. 결국 지켜보던 코치 한 분이 답



답했는지 보다 못해 직접 스트레칭을 지도했다. 당연히 “악”소리가 났다.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마치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니”하며 놀란 눈치였다.

핸드볼의 기본 드리블, 롤 모델은 김민서

본격적인 첫 훈련은 드리블이었다. 농구와 마찬가지로 핸드볼에서 드리블은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다. 농구도 취재하고 있는 기자는 농구에 익숙한 나머지 ‘농구처럼 드리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다. 농구와 핸드볼의 드리블 원리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드리블에서 핵심은 손 전체가 아닌 손가락과 손목 힘만을 활용해 공을 잡는 것이었다.(여기서 잠깐, 명치 위로 올라오거나 농구처럼 공을 감아서 치면 더블드리블이라고 하니 주의, 손바닥이 보여서도 안 된다.)

강지혜 코치는 일단 강하게 드리블 칠 것을 요구했다. 드리블은 말뚝이었다. 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다. 강하게 치려고 할수록 공이 손에서 벗어나곤 했다. 오른손은 나름 괜찮았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색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왼손이었다. 드리블이 아니라 ‘패대기’ 수준이었다. 공이 자주 제멋대로 흘렀다. 옆에서 드리블 하던 모습을 본 코치는 농구처럼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다. 코치는 “이건 농구가 아니다”라고 웃으며 핀잔을 줬다. 답답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결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땀은 더욱 쏟아졌다. 크로스 드리블을 할 때는 다리를 맞고 튕겨가기도 했고, 왼손 드리블 도중에도 여러 차례 험볼을 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여자 선수들이 너무도 수월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나름 체육학과 출신이라고 우쭐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역시 모든 건 일찍 배우는 게 좋구나’ 하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휴식을 취했다.
 첫 단계부터 뼈격됐다. 하체를 최대한 낮춰야 했기 때문. 아무리 낮춰도 자세가 더는 낮아지지 않았다. 시작과 동시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겨울인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훈련을 마친 바로 그날. 우연히 삼척시청 경기를 보게 됐다. 시선을 사로잡았던 선수는 바로 슈퍼루키 김민서였다. 김민서는 왼쪽으로 돌파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는 했다. 순간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앞으로 롤 모델은 김민서가 될 것 같다. 물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다. 그 날 이후로 양치질도 왼손으로 하고 있다. 왼손 양치질이 익숙해질 때에는 다른 상황에서도 왼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에게 맞는 옷을 찾다

잠시 휴식 이후 또 다른 훈련에 돌입했다. 패스 훈련이었다. 최종 목표인 ‘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좋은 시야, 한 박자 빠른 패스웍이 필수다. 코치 선생님들께서는 드리블 없이 패스만으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걸 강조했다. 서서 패스, 움직이면서 패스, 사각 패스 등의 다양한 패스 훈련이 이어졌다. 강 코치가 시범을 보였다. 역시 깔끔했다. 그리고 차레가 나에게 가장 먼저 돌아왔다. 드디어 맞는 옷을 찾은 느낌이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던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일까. 6~7번의 패스를 군더더기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안정적인 캐치 능력은 덤. 전체적으로 자세가 말끔했다는 칭찬까지 들었다.
 어느덧 수업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흘렀고 마지막 순서로 ‘게임(Game)’이 진행됐다. 7명 씩 3조로 나뉘었고 나는 오렌지 팀에 편성됐다. 이후 강 코치는 나에게 골키퍼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안정적인 캐칭 능력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인 걸까. 또 혼자만의 쓸데없는 자백(?)에 빠지게 된다. 나는 단 한 차례의 고민없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골대로 향했다. 이제 제법 팀으로서의 구성을 갖췄다. 팀





원들과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일부러 파이팅도 더 크게 외쳤다. 나는 타고난 골키퍼 체질이였다.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코치님으로부터 “골키퍼는 절대 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새겨 듣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다행히 상대팀의 공을 곧잘 막아낸 나였다. 동료들도 “잘했어요”, “나이스 선방”이라는 말로 나를 격려했다. 이 순간만큼은 마치 삼척시청의 베테랑 골키퍼 박미라가 된 기분이었다. 두 경기를 치른 우리 팀은 블루팀과 블랙팀에 모두 승리하며 이날의 ‘승자’가 됐다. 물론 2경기를 모두 이길 수 있었던 데는 팀원들의 도움이 컸지만 골문을 지키던 골키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함도 느꼈다.(참고로 기자는 이날 2경기에서 1골을 실점했다.)

야, 너도 핸드볼 할 수 있어!

씩 완벽하진 않았지만, 게임을 끝으로 이날 <KHF 핸드볼 클럽 현장 학습>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우여곡절 끝에 사고 없이 훈련 체험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코치님들께서도 훈련이 종료된 뒤,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물어봐주셨다. 나 역시 “다친 곳 없이 1시간 반 동안 너무 알차게 현장학습 체험을 하고 돌아간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답했다. 게임에서 골키퍼 포지션을 소화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골키퍼를 맡았기에 이번 <KHF 핸드볼 클럽 현장 학습>에서 한 톨의 존재감은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훈련을 마친 뒤 나와 함께 팀을 이뤘던 팀원들에게도 훈련 체험에 참여한 소감을 물어봤다.

윤현경 코치가 말하는 KHF 핸드볼 클럽

Q. KHF핸드볼클럽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시작한지 9년 정도 됐다. 성인부 경우, 정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핸드볼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100명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핸드볼이라는 종목이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입문반부터 응용반까지 레벨별로 나누어져있다.

Q. 동호인부에서는 어떤 훈련이 진행되나.

입문반은 핸드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드리블, 패스, 샷 등을 배운다. 기본기가 잘 이뤄져야 응용플레이나 게임도 할 수 있다.

Q. 기자는 오늘 게임에서 골키퍼 포지션을 소화했다. 골키퍼를 잘 보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

초보자들은 패스 미스나 드리블 실수가 잦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하게 된다. 침착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골키퍼 경

우, 어느 타이밍에 나오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도 중요하다.

Q. 앞으로의 목표는?

협회에서 그동안 KHF핸드볼 클럽을 많이 홍보해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대구, 전북 등 전국적으로 핸드볼 동호인 클럽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더 나아가 핸드볼 클럽 동호인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핸드볼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다.



KHF핸드볼클럽 이래서 재밌다... 수강생들의 말.말.말

고윤희 님

핸드볼클럽에 다닌지 2년 정도 됐다. <노는언니>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김온아 선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수들이 슈팅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 시도 한 눈을 팔수 없을 정도로 몰입해야 한다는 매력이 있다.



천지윤 님

코치 선생님들이 공 잡는 그림부터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친근히 잘 지도해주신다. 핸드볼클럽을 다닌 이후로 핸드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선수들에게 자세에 대해 직접 조언을 구할 정도까지 푹 빠져버렸다. 앞으로 핸드볼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전국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정은 님

초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한 뒤 이후 성인이 되기까지 핸드볼을 멀리했는데 최근에서야 다시 시작했다. 확실히 KHF핸드볼 클럽 등이 운영되는 걸 보면 어릴 때보다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사실 축구, 야구, 농구에 비해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적다. 그런 면에서 KHF핸드볼클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업 출신 선수들께서 직접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전문성도 검증되어 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수강생이 KHF핸드볼클럽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날 내내 오렌지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고윤희 씨는 “2년 동안 KHF핸드볼 클럽을 다녔는데 기자와 팀을 이뤄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천지윤 씨도 “골키퍼는 일단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합격이었다. 골키퍼를 잘해주신 덕분에 큰ミス없이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다”며 웃었다.

덧붙일 말이 있다. 어쨌든 이번 훈련 통해 핸드볼을 좋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은 확실히 강도는 낮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핸드볼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 한 번쯤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핸드볼 경기 취재만 해봤지, 핸드볼의 ‘핵’자도 몰랐던 나에게도 값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핸드볼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더 늘어나 핸드볼의 저변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훈련에 도움을 주신 대한핸드볼협회 장리라 부회장을 비롯해 KHF핸드볼클럽 강지혜, 윤현경, 김은혜, 송석기 등 4명의 강사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KHF핸드볼클럽에 가입하려면?

KHF핸드볼클럽은 누구나 핸드볼을 즐길 수 있게 그리고 핸드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클럽이다. 핸드볼클럽은 유치부부터 동호인부까지 총 10개의 클래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열리며 각 클래스 당 주 1회 수업으로 강습비용은 반기 기준 12~15만원이다. 자세한 수강내용은 http://khf.handballkorea.com/club/apply_list.ph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 11월 1일 성료...“초대 챔피언 주인공은 우리!”

11월 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에선 각 팀의 사령탑들과 대표 선수들은 모두 참석해 시즌을 앞둔 각오를 전한 가운데 개성 넘치는 우승 공약도 뒤를 이었다. 서울시청 송지영은 "우승하면 팬들과 함께 2층 버스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밝혔고 광주도시공사 김금순은 "한복을 입고 팬들과 사진을 찍겠다"고 했다.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하남시청 김지훈은 '감독님의 사비'로 장어 파티를, SK슈가글라이더즈의 김수정은 삼겹살에 소주를, 경남개발공사의 허유진은 회 대접을 약속했다.



SK호크스, 충북 스포츠 발전 지원금 5000만원 전달

SK하이닉스 핸드볼구단인 SK호크스가 15일 유소년 핸드볼, 비인기스포츠 육성 등 충북 스포츠 발전 지원금 5천만원을 충북체육회에 전달했다. 2016년 창단한 SK호크스는 청주시 대표 핸드볼구단으로서 핸드볼 종목 발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SK호크스는 2019년 스포츠 광고수익 사회 환원 시행 이후 충북체육 비인기종목 육성 지원, SK호크스 선수 모교장학금, 충북대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등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후원금은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후원금은 유소년 핸드볼 발전과 비인기스포츠 육성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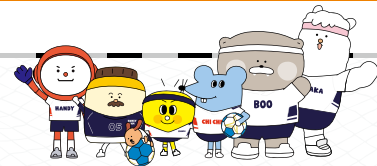


핸드볼 H리그 2023-2024시즌, '맥스포츠'서 모든 경기 생중계

한국핸드볼연맹(KOHA·총재 최태원)과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총재 권오갑)이 채널 AXN, UMAX 등을 보유한 필콘미디어와 손잡고 스포츠 전문 채널 MAXPORTS(맥스포츠)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 개국한 맥스포츠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핸드볼연맹이 만든 미디어 법인 맥스포츠미디어와 필콘미디어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설립한 종합 스포츠 채널이다. 아울러 '맥스포츠'는 이번 시즌 치러지는 경기를 모두 TV 생중계하고 하이라이트와 월간 분석 등의 영상을 제공한다.



H리그 창설을 앞두고 핸드볼코리아 표지는 과연 누가 장식할지 매우 궁금했었는데 '어우두' 두산이 주인공이 됐네요.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사진이 참 잘 나와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SK호크스에 새롭게 합류한 누노 알바레스 감독 인터뷰 기사도 재밌게 잘 봤고요. 최근 여자대표팀의 부진에 대한 특집 기사도 매우 심층적이고 냉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부진을 딛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다시 멋지게 부활했으면 합니다. 다음 호도 기대할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성욱>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11·12월호(vol. 67)에 대한 의견을 12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푸마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상용전문 여행사



맥여행사는 여러분의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Mac (주)맥여행사
Mac Travel
www.mactravel.co.kr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44 S&S빌딩 별관
Tel.02-2021-9000 Fax.02-766-5577



molten®
For the real game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FOREVER. FASTER.



ULTRA SHIELD

탄소제로 실천, 어렵지 않아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Green Index

친환경 소비자를 위한 국내 최초
카드데이터 기반 탄소배출량 안내

신한카드 ECO Zone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

산림생태계보전 프로젝트

희귀식물 증식, 숲정원 조성 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이용고객
편의성 향상 카드 출시

Green 리모델링 지원

노후 건축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623-Exn-001호(2023.06.23~2024.06.22)